



마다가스카르  
이광수, 김정아 선교사의  
중보요청 나눔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연말이 코 앞이네요.  
저희들의 몇몇 소식 전해 드립니다..!

## 저희, 이사했습니다...^^

마다 입국 3개월만에 드디어 사역지 안시라베  
(Antsirabe)로 이사를 했습니다. 마음씨 좋은 집 주인과  
새로 수리를 해서 깨끗한 집을 저렴한 가격(월세 33만  
원!)에 얻어 두 주 전에 이사했지요~ㅎ 선교지이긴 하지  
만 이런 집과 조건을 찾긴 쉽지 않은데 진짜 아버지의  
예비하심이었어요!



함께 이사 온 강아지  
두마리는 완전 자기들 천국을  
만났고요. 얼마나 예쁘고  
귀여운지...!! ㅎ

웬만큼의 집 정리는 끝났고 이제 내년을 바라보며 사  
역과 준비, 사람 만나기, 말라가시 언어 준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복숭아 나무

꽤 오래 된 복숭아 나무 한그루가 집 정원에 있는데  
복숭아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 따도 따도 여전히 주렁  
주렁 하네요. 완전 달고 맛있고요..



열심히 따서 실컷 먹고(ㅋ..) 아내가 잼도 만들고 그리  
고 저희 집 주변 가정에 한 봉지씩 들고 가 전해주며

이사왔다고 인사하고 서로 소개하고...ㅎ  
 외국인이 찾아와서 이사를 왔다고 먼저 인사를 하는 경우  
 는 처음 봤다며 고마워 (사실 거의 놀라워..ㅋ) 하고  
 더구나 한국인 선교사라고 하니까 더 반가워들 합니다.  
 일순간에 우리 집 뺨 둘러 있는 주변 이웃들과 완전 잘  
 아는 사이가 되었죠..ㅎ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다는 건  
 아,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ㅎ  
 평생 나누어 주며 살았으면 좋겠는데~~ㅎ

## 파트너십 with UGBM

UGBM과 파트너십으로 함께 사역하기로 최종 결정되  
 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UGBM 학생들을 지도할  
 수도 있고 그 네트워크를 통해 마다 어느 곳에서나 사역을  
 해 나갈 수도 있게 되었죠.



UGBM은 마다가스카르 전역에서 중,고,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공부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완전 초점이 맞추어진 마다가스카르 자생 학생 복음운동  
 단체입니다. 이 단체와 협력관계가 됨, 참 감사하네요..  
 ㅎ

## 꿈의 학교 (Dream School)와 아버지의 집 (탁아소) 이야기

### 지붕공사 완료



바람에 날아갔던 지붕과 건물의 다른 몇몇 불안한 부  
 분들의 수리를 두 주 전에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이 큰  
 사건에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모든게 마무리  
 됨, 정말 아버지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마다에는 매 해 12~2월에 인도양 쪽으로부터 엄청  
 난 폭우를 동반한 큰 허리케인(폭풍)이 3~4개 가량 오곤  
 하는데 그 때가 되면 낮은 지역의 모든 논, 밭이 엄청난

피해와 함께 호수가 되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닙니다.

올 해에는 그 비와 바람의 공격에 높은 산 꼭데기에  
위치해 있는 학교와 탁아소에 아무 문제가 없길, 지붕이  
다시 날아가는 일이 없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 학교의 경제적 상황

지붕 보수공사는 사랑의 봉사단 지원으로 신속하게 이루어  
졌습니다. 사실 이런 수리나 모든 비용을 학교 자체가  
감당할 만큼 학교가 빨리 성장을 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림도 없는 경제적 상황을 달리고 있죠..ㅠ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린이들, 탁아소 아이들의  
급식 수준과 심지어는 학교 건물의 유지 보수, 청소 관리..  
등 모든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 워낙 낡  
아 거의 매 달 끊임없이 수리비가 들어가는데 경비를 줄  
이기 위해 이런 청소, 정리 부분에 학부모들이 적절히 참  
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학교와 가정에 경제적 수입이  
될 수 있는, 학부모들을 통한 아이터치들을 학교 차원에서  
개발해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학교가 스스로 자립해 가는  
길을 찾고 정착해 가는게 또한 우리가 찾아가야 할 일  
입니다.

## 소중한 아이들

이런 어려움과는 전혀 관계없이 꿈의 학교 아이들과 탁  
아소 영아들은 언제나 예쁘고 천진난만하게 뛰어 놀니  
다. 학교에서 매일 제공되는 점심을 먹은 후 어두운 방  
(교실-방 바깥)에서 줄 지어 누어 잠을 자는 탁아소 아  
이들의 모습은... 그냥 천사들입니다.



많은 아이들의 가정이 거대한 돌 산에서 하루 종일 돌을 깨는 엄마 아빠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아이들의 옷이나 외모에 신경을 쓸 만큼 경제적, 시간적, 정서적 여유가 없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옷이 남루하고 때때로 아이들의 걸 모습이 조금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영혼은 우리 아이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된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입니다. 이 철 모르는 아이들 중 후일에 자기 동족을 평생토록 마음에 품고 마다가스카르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 학부모 미팅

지난 11월 25일 날, 꿈의 학교(초등학교)와 아버지의 집(탁아소) 학부모 미팅때 아내 김정아 선교사가 하나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학부모들과 문에서 일일이 인사를 하며 마음을 나눴죠..ㅎ



## 교사들과의 시간

학부모 미팅 후에 탁아소 아버지의 집 교사들과 미팅을 가졌고 그 전 화요일에는 꿈의 학교 교사들과 만남을 갖고 서로의 업무와 지도 과목, 본인의 가정 등을 소개하고 학생들에 대해 이야길 나누며 서로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사들과 더 많이 친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 더 자주 만남을 가져야 할텐데 저희가 안시라베에 있다 보니 한달에 한번 타나에 잠깐 올라가 만남을 갖는 것 외에 현재 다른 방법이 없어서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ㅠ 사실 학교 교육은 교사들의 자세와 열심이 그 핵심이고 교사의 지도에 따라 학생들 교육이 좌우되기에 교사들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ㅠ

## 새로운 시스템의 필요

학교를 관리하고 시스템을 정리해 가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5시간 거리에 거주하는 저희가 자주 학교엘 갈 수가 없기에 지난 10여년 동안 학교를 이끌어 온 현지 교장(Vero. 여성. 목사님)을 통해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 가도록 하되 적절한 방법을 통해 관리와 조언, 체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봐 온 교장 베루는 참 성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만 항상 해오던, 마다 현지의 방식대로 일을 해 나가기에 새로운 틀

로 체계를 잡아야 할 것 같고 모든 업무를 시스템화 시켜 안시라베나 한국, 어느 곳에서나 업로드된 당일의 상황들을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게 현재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보입니다.

12월 23일에 성탄절 프레젠테이션이 계획되어 있고 그 순서를 끝으로 올 해의 학교, 탁아소 학기를 종강하게 되는데 예쁜 마무리가 되도록 중보를 바랍니다.

##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주님 오신 성탄이 코 앞이네요.  
매 년 오는 성탄절이지만 올 해는  
우리 위해 오신 주님의 사랑과 의미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더 깊이 다가오는,  
복된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2022. 12. 9.

마다가스카르 안시라베에서  
이광수, 김정아 드림.